

집념의 연변팀, 포기하지 않았더니 극장끝이 찾아왔다!

- 꺾통더위 날리기에 충분했던 1대1 원정 무승부

7월 6일 저녁 7시 30분에 남경시 오대산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5 화요리그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5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선전하였으나 풀결정력 부족으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더불어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더한 연변팀은 갑급리그 순위에서 석가장공부팀을 제치고 4위로 도약했다. 이날 경기전까지 똑같은 승점 24점이었으나 풀결정력에서 밀리다가 석가장공부팀이 1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곤성팀에 3대1로 패하면서 우위를 점했던 것이다.

한편 장효봉 감독 체제로 바뀐 남경도시팀은 이날 21번 제우회를 키퍼로, 42번 루페타, 18번 동홍린(주장), 24번 두군봉으로 수비선을 세우고 39번 여몽휘, 7번 꺾의, 32번 리광문, 31번 주광문으로 허리를 구축했으며 22번 맹진, 9번 랑걸, 10번 오거부로 공격선을 이룬 3-4-3 공격형 전형으로 나왔다.

이기형 감독이 지휘하는 연변팀은 21번 구가호에게 풀문을 맡기고 28번 누네스, 15번 서계조, 3번 왕봉(주장), 16번 허문광으로 수비선을 구성했으며 14번 리룡, 17번 박세호, 5번 도밍구스, 20번 김태연으로 중원을 구성하고 30번 황진비와 10번 포브스로 공격선을 구축한 4-4-2 만능 전형으로 맞섰다.

이번 경기는 7월 5일에 진행된 경기에서 석가장공부팀이 대련곤성팀에 1대3으로 패하면서 연변팀이 비켜나 이기던 4위로 올라가는 동시에 광주표범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3위도 바라볼 수 있는 관건적인 경기여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장저후축구팬클럽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연변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오대산경기장은 연변팀의 흥장을 방불케 하였다.

경기 초반 두 팀은 느슨한 탐색전으로 상대의 허를 노렸다. 진영을 앞으로 올린 연변팀은 포브스와 황진비를 최전방에 침투시키고 중원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였고 남경도시팀은 수비 작전으로 응하였다.

경기 8분경에 연변팀이 첫 코너킥을 얻었지만 풀문선 밖으로 나갔고 잇달아 남경도시팀도 코너킥 기회를 가져갔지만 역시 별 위협을 주지 못하였다. 11분경 김태연이 먼거리슛을 날렸지만 풀문 밖으로 흘러갔다.

연변팀은 황진비와 김태연을 왼쪽 측면 공격에 동원시키면서 상대의 수비 중심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경기 15분경 남경도시팀은 패속 반격 기회에 먼거리 강슛을 날렸지만 하늘로 날아올랐다. 20분경, 도밍구스의 눈부신 개인기가 빛을 발하며 상대의 반격을 얻어냈다. 25분경, 연변팀은 한차례 공격 전개로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풀로 연결하지 못하였고 상대의 반격에 왕봉이 전술적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연변팀!"을 웨치는 연변축구팬들의 우렁찬 응원소리가 경기장을 뒤흔든 가운데 도밍구스가 랑걸의 허리를 가격하면서 상대에게 프리킥 기회를 주었으나 구가호가 공을 거둬들였다.

41분경, 연변팀이 세번째 코너킥을 얻었지만 상대의 수비벽에 막혀나왔고 연속 2차의 슛도 풀문을 명중하지 못하였다. 45분경 루페타의 강슛이 코너킥으로 이어졌고 하마트면 연변팀의 풀망을 흔들 번하였다.

경기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고 전반전 경기는 0대0으로 계속되었다.

전반전 경기를 살펴보면 남경도시팀은 7차의 슈팅으로 연변팀의 4차 슈팅을 앞섰고 옐로카드를 연변팀이 한장이었으나 중앙 점유율은 연변팀이 70%로 훨씬 높았다.

후반전 들어 쌍방은 공방 절주를 눈에 띄게 올렸고 동작도 거칠어졌다. 승리에 대한 욕

망이 컸기 때문이다.

50분경, 프리킥 기회를 리용하여 남경도시팀의 오거부가 슛을 날렸지만 풀문대를 스치고 바깥 땅을 흔들었다. 53분경, 연변팀도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포브스의 헤딩슛이 풀문 밖을 향했다. 이기형 감독의 아쉬움이 컸다면 축구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짙었다.

진영을 올린 연변팀은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했다. 반면 남경도시팀의 반격 기회도 적지 않았다. 59분경의 패속 반격은 매우 위협적이었다.

60분경, 황진비에 대한 동홍린의 반칙에 연성을 높인 연변팀 감독진이 옐로카드를 받았다. 61분경, 연변팀은 또 한번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헤딩슛은 상대 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66분경, 기회가 재차 포브스에게 차례졌지만 그의 강슛은 자대를 댄 듯이 풀문 밖으로

흘러갔다. 감독은 머리를 째안았고 동료 선수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남경도시팀은 경기 65분까지 5명의 교체카드를 전부 써버렸지만 연변팀은 72분경에야 교체카드를 꺼내들었다. 체력 소모가 많았던 김태연, 박세호, 허문광을 내리고 천창걸, 리세빈, 왕자호를 올렸다.

86분경, 남경도시팀이 선제골을 뽑았다. 한차례 반격 기회에 루페타와 오거부의 배합으로 연변팀의 수비선을 뚫고 구가호의 다리를 맞으면서 풀망을 갈랐다. 수비와 공격 4:2의 상황에서 상대에게 슈팅 기회를 준 것이다. 0대1, 경기 균형이 깨지면서 연변팀이 추격하는 상황이 되었다.

후반전에는 7분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데 황진비가 구세주로 나섰다. 92분경, 한차례 반격 기회에 포브스의 헤딩 도움으로 상대 금자구역 안으로 파고든 황진비가 결정타를 가한 것이다.

1대1, 경기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쌍방은 숨막히는 공방전으로 경기 종료 직전까지 승리에 대한 욕망을 불태웠다.

왕봉을 공격한 오거부가 옐로카드를 받는 등 추가 시간이 화약 냄새가 짙었고 쌍방은 모두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경기는 최종 1대1로 마무리되었다.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긴 연변팀은 7월 12일 저녁 6시에 광동광주표범팀을 '마귀' 홈장에 불러들인다. 올 시즌 제 1라운드 경기에서 0대4로 패했던 연변팀은 안방에서 설욕전을 준비한다.

/ 김태국 김파 기자

경기후

왕봉 "그라운드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할 일"



홈 7연승 기세를 몰아 첫 원정승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남경도시팀과의 경기에서 연변팀은 충분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풀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연변팀 주장 왕봉이 또 한번 취재 자리에 나섰다.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격렬한 경합과 쟁탈전이 오고갔는데 1대1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왕봉은 "경기가 아주 치열했는데 축구는 이런 것"이지 않냐며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자 지켜보는 팬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투지를 보인 경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장저후지역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 응원을 오는 장저후축구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이기형 감독

"이번 경기가 남긴 숙제, 어떻게 풀지 고민하겠다."



7월 6일 저녁, 남경시 오대산경기장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5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후반전 연장 시간에 나온 황진비의 극적 동점골로 남경도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무더운 날씨에 랑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고 나서 "경기는 비겼지만 나에게 숙제를 남겼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지는 들어가서 잘 고민하겠다."고 경기를 총평했다.

/ 김파기자

자존심과 돈 모두 거머쥘 최종 팀 어디?

'PSG-레알 빅매치 성사' 클럽 월드컵 4강 대진표 확정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준결승(4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레알 마드리드(에스파냐), 플루미넨시(브라질)와 첼시(잉글랜드)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공교롭게도 4강 진출팀 모두 소속 리그가 다르다.

PSG와 레알 마드리드는 6일(중국시간) 미국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각각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이상 독일)를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다. 대회 대진표에 따라 두 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두 팀은 오는 10일 오전 3시(중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격돌한다.

유럽 전·현 챔피언의 맞대결이기도 하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15회)인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2023-2024 시즌 대회 정상에 올랐다. 2024-2025 시즌에는 PSG가 인터밀란(이탈리아)을 5-0으로 대파하고 새로운 유럽 챔피언이 됐다. 두 팀은 이제 클럽 월드컵을 무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친다.

PSG는 앞서 조별 리그 B조를 1위(2승 1패)로 통과한 뒤 준결승까지 올랐다. 조별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스파냐)를 4-0으로 대파했고 이후 토너먼트에선 리오넬 메시가 속한 인터 마이애미(미국)를 4-0으로, 8강에선 바이에른 뮌헨을 2-0으로

로 각각 제압하는 등 유럽 챔피언다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조별 리그 H조를 1위(2승 1무)로 통과했다.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 1-1로 비겼지만 이후 파추카(멕시코),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를 완파했다. 토너먼트에선 유벤투스(이탈리아)와 도르트문트를 꺾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 최다 우승팀(5회)이기도 하다.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킬리안 음바페 더비로도 주목을 받는다. 음바페는 PSG에서 7시즌을 뛰며 유럽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른 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오랜 이적설 끝에 PSG와 제계약을 거부하고 자유계약신분(FA)으로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PSG가 AS모나코에서 뛰던 음바페를 영입할 당시 들었던 이적료는 무려 1억 8,000만 유로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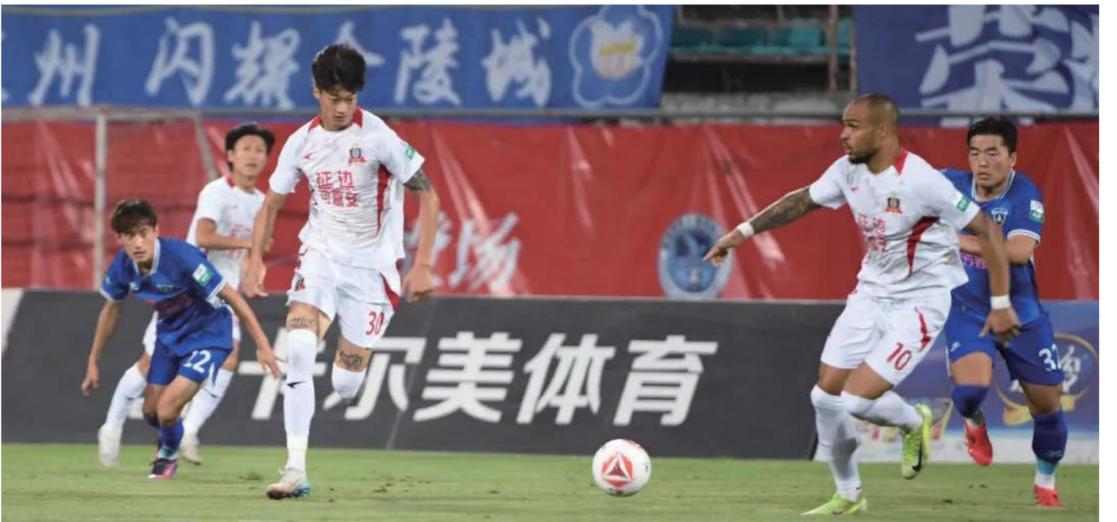
반대편 4강에선 유일한 비유럽팀 플루미넨시가 첼시와 격돌한다. 유럽팀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비유럽팀중에선 유일하게 생존에 성공했다.

첼시 역시 조별 리그 D조를 2위로 통과해 준결승까지 올랐다. 공교롭게도 첼시는 이번 대회에서만 브라질팀과 세번째 격돌한다. 두 팀은 오는 9일 오전 3시(중국시간)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4강 서막을 올린다.

/ 외신종합

포토 포커스

90'+2'



기대했던 첫 원정승은 없었지만 경기 92분에 나온 황진비(사진 왼쪽)와 포브스(사진 오른쪽)의 협력 동점골은 이 악물고 뚝 선수들은 물론 지켜보는 축구팬들에게는 충분히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경기 86분에 선제골을 내주었다. 사기를 꺾기에 충분한 시간대였다. 꺾통더위 속에서 이미 충분히 체력을 소진한 선수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거퍼 몇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들 질 거라는 예상을 깨고 되려 끝까지 연변팀다운 투지와 정신력을 발휘한 건 선수들이었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구세주가 나타났다.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황진비는 절대적인 풀결정력을 뽐내며 다시 없을 기회를 랑비 없이 득점으로 연결했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